

타이거즈 마무리 정해영 “기록” 보다는 우승”



KIA 타이거즈 마무리 정해영이 호주 캔버라 나라본다 볼파크에서 볼펜 피칭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스프링 캠프

호주 캔버라=김여울 기자 YouTube 광주일보

KIA 타이거즈 마무리 정해영이 ‘우승’을 위해 알에서 깨어난다.

프로 5번째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정해영은 KIA에서 가장 늦게 마운드에 오르는 선수다. 압박감 가득한 순간에 공을 뿌리고 있는 그는 지난 4시즌 90세이브를 수확하면서 ‘최연소 100세이브’ 기록에 10개만을 남겨두고 있다.

기록이 눈앞에 보이지만 정해영은 세이브가 아닌 ‘블론세이브’를 주목하고 있다.

정해영은 “내 목표가 바뀌었다. 원래는 세이브 개수를 목표로 정했는데 블론세이브를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지난해 3개의 블론세이브를 했는데, 하나를 덜 했다면 동률로 우리가 5강에 올라갈 수도 있었다”며 “아무리 세이브를 많이 해도 블론 세이브가 많아지면 세이브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 세이브 성공률이 좋아야 한다. 최대한 100세이브 신경 안 쓰고 팀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성공의 짜릿함보다 실패의 아픔이 더 큰, 막중한 임무를 하는 만큼 정해영은 ‘성공보다 실패’에 더 집중하고 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정해영은 더 단단해지겠다는 각오다. 지난 시즌 정해영은 초반 난조로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기도 하는 등 마음 고생을 했다.

정해영은 “안 될 때는 될 해도 안 됐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그럴 때는 받아들이면서 조금 더 집중해야 할 것 같다”며 “블론세이브 같은 상황을 겪으면 항상 당황스럽다. 진짜 미안하기도 하지만 다음 경기를 막아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멘탈이 중요한 것 같다. 미국 가서 정재훈 코치님이랑 야구 이야기 많이 했다. 특히 멘탈을 많이 강조하셨다. 3연전 첫날에 내가 만약 블론세이브를 해도 다음 경기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나가서 세이브를 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잊어 버리고 멘탈도 회복해야 한다”며 “몸도 과부하되면 힘든 것 처럼 멘탈도 그런 것 같다. 안 좋은 경기가 나왔을 때는 최대한 그냥 바로 잔다. 빨리 지나가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도 멘탈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연소 100세이브’ 보다
블론세이브 없도록 최선
100% 힘 발휘 위해 폼 교정

멘탈을 강하게 하는 방법, 자신의 공에서 답을 찾겠다는 생각이다. 좋은 공을 가지고, 좋은 승부를 해야 실패도 적어지고 더 자신감 있게 마운드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해영은 “코치님이 승부처, 위기 상황 때를 이야기 해주셨다. 당시 코치님 주무기가 포크볼이었는데 누가 봐도 포크볼 던질 타이밍에 던져서 아웃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허를 찌러서 아웃카운트나 삼진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런 것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앞으로 선수 생활하면서 닥치는 많은 위기를 더 수월하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결국 구위와 변화구가 좋고, 배짱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해영은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무기를 더 강력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정해영은 “야구는 정답이 없으니 계속 보완하고, 바뀌어야 한다. 구종을 추가하기 보다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다듬겠다. 누가 봐도 슬라이더인데 그 공으로 헛스윙을 이끌어 내고, 작구 코스로 허를 찌를 수 있어야 한다. 수싸움도 잘해야 한다”며 “나도 분석 많이 됐고, 타자들도 눈에 익었으니 수싸움, 초구-카운트 싸움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 단단해지고 싶은 정해영은 미국 드라이버라인에서 얻은 답을 바탕으로 호주 캔버라 스프링캠프에서 폼을 변화시켰다.

그는 “나는 내 힘을 100%로 활용 못하는 투수였다. 키링에서 스트라이드 나가는 것까지는 되게 좋은데 왼 다리를 밟는 순간에 모든 힘이 약간씩 풀렸다. 최대한 발을 디딜 때까지 안 풀리고 던져야지 내 힘을 다 쓸 수 있다”며 “오른팔 뒤로 빼는 동작을 조금 수정하고 있다. 원래 밑으로 뺐다가 팔이 위로 올라오는데 조금 옆으로 하면서 원을 그리려고 한다. 그래야 발을 밟는 순간에 힘도 뒤에 남아있고, 힘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지고 커진다”고 말했다.

위험 부담은 있다. 아직 익숙치 않은 폼이라 시간이 필요하다. 또 힘을 더 쓰게 되면서 부상 위험도 높아진다. 정해영은 ‘알에서 깨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한다.

정해영은 “던지면서 힘을 다 못 쓰니까 부상 위험은 떨어진다. 그런데 이제는 무리해서라도 한 단계 올라서야 된다. 아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던지던 팔 스로잉이 아니라 보니까 느껴지는 힘 자체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웨이트나 보강 운동으로 커버하면서 부상 안 당하게끔 노력하고 있다”며 “올 시즌 팀이 잘할 것 같다. 지난해 팀이 완전체로 있는 순간에는 투수가 점수를 줘도 타자들이 뽑아줄 것 같고, 타자가 점수를 많이 못 뽑아줘도 투수들이 막아서 이길 것 같았다. 그걸 경험했다. 언젠가서도 그렇고 우리팀을 경계대상으로 꼽는다. 내가 잘해야 한다. 무조건 야구 잘해야 한다. 잘 막고, 잘 웃고, 팬 서비스도 잘하는 정해영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wool@kwangju.co.kr

KIA 호주 캠프 마무리... 22일 일본서 2차 캠프

KIA 타이거즈가 처음 호주에서 치른 스프링캠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KIA가 호주 캔버라에서 진행한 1차 스프링캠프가 20일 종료됐다. 지난 1일 나라본다 볼파크에서 시작된 이번 캠프는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전개됐다.

선수단은 체력 및 기술 훈련에 중점을 두고 호주 캠프를 진행했다. 피치 클락, 베이스 크기 확대 등 이번 시즌 KBO 리그에 도입될 새로운 규정에 대비한 훈련도 병행했다. 지난 18일에는 자체 연습경기를 갖고 실전 돌입에 맞춰 워밍업을 했다.

선수들은 22일 2차 캠프지인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가 본격적인 실전 체제로 전환한다. 오키나와에서는 6차례 연습경기가 예정됐다.

25일 KT 위즈와의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27일 일본 야쿠르트 스왈로스, 28일 롯데 자이언츠와 대결한다. 이어 3월 1일 삼성 라이온즈, 3일 롯데, 4일 KT와 총 6차례 실전을 치른다.

25일 KT, 28일 롯데, 3월 1일 삼성, 3월 4일 KT 전 등 4경기는 KIA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인 ‘가티비’를 통해 생중계로 확인할 수 있다.

/wool@kwangju.co.kr



‘U턴’

류현진, 국내 복귀 임박...한화 ‘4년 170억원+α’ 최고 대우 보장

정해성 축구협 전력강화위원장 선임

차기 대표팀 감독 물색 임무

차기 축구 대표팀 사령탑 선임 작업을 이끌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으로 정해성(사진) 현 대회위원장이 선임됐다.

축구협회는 20일 임원회의를 열어 정 위원장에게 전력강화위원장 자리를 맡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002 한일 월드컵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을 코치로 보좌해 한국의 4강 신화에 이바지한 인물이다.

전력강화위는 남녀 대표팀과 18세 이상 연령별 대표팀 지도자 선임과 해임, 계약약 등 각종 대표팀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기구다.

정 위원장은 워르겐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과 함께 물러난 마이클 필러(이상 독일)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전력강화위를 이끈다.

정 위원장의 급선무는 역대 최악의 혼란 속에 공식이 된 남자 대표팀 사령탑을 물색하는 것이다.



축구협회가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출전과 4강 탈락의 책임을 물어 클린스만 전 감독을 경질한 가운데, 대표팀은 당장 3월 A매치기간(18~26일)에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의 가장 절기로운 상대인 태국과의 3, 4차전(21일·26일)을 거푸 치른다.

만약 새 사령탑 선임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3월 A매치에서만 대표팀을 이끌 임시 감독이라도 뽑아야 한다.

홍명보 울산 HD 감독, 김학범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 김기동 FC서울 감독, 황선홍 23세 이하(U-23) 대표팀 감독, 최용수 전 강원FC 감독 등 임시 감독으로 거론되는 지도자 대다수가 현재 맡은 팀이 있기 때문에 이 작업 또한 쉽지 않을 거로 보인다.

/연합뉴스

한화 이글스가 류현진(36·사진)에게 ‘4년 170억원 이상’의 역대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최고 대우를 약속했다.

다만, 협상과 계약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지는 못했다.

일단 한화와 류현진이 구상하는 ‘현재 가장 이상적인 일정’은 21일 계약을 완료하고, 22일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 합류하는 것이다.

한화는 최근 한국야구위원회(KBO)를 통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에 류현진의 신분 조회를 요청했고, 20일 류현진이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한화는 ‘서류 작업’과 ‘협상’을 동시에 진행했다. 서류 작업 중에는 ‘임의해지 선수 신분 해제 요청’이 남았다. 더 중요한 류현진과의 협상도 아직 100% 완료하지는 않았다.

일단 한화는 ‘4년 기준 총 170억원+α’를 제시했다. 170억원은 모두 보장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4년 170억원은 총액과 평균 연봉(42.5억원) 모두 KBO리그 최고액이다.

류현진이 도장을 찍는 순간, 양의지가 2023시즌을 앞두고 두산 베어스와 계약한 4+2년 최대 152억원의 중전 총액 기록, 김광현이 2022년 3월 빅리그 생활을 접고 SSG 랜더스로 복귀하며 사인한 4년 최대 151억원의 중전 평균 연봉(37억7500만원) 기록을 훌쩍 넘어선다.

여기에 한화 구단은 보너스 또는 류현진의 편의를 위한 계약 조항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은 2012시즌이 끝난 뒤, 한화의 동의를 구해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으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렸고,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6년간 총액 3600만 달러에 계약했다. 한화는 당시 환율로 약 280억원(2573만7037달러33센트)의 이적료를 받았다.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 박찬호 등 류현진보다 먼저 빅리그에 진출한 ‘한국 선배’는 모두 KBO리그를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가 메이저리그 생활을 견디고서 빅리그 무대에 섰다.

류현진은 KBO리그에서 7시즌을 보낸 뒤, 포스팅으로 빅리그에 직행하며 다른 한국 동료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빅리그에서 류현진은 186경기에 등판해 78승 48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3.27을 올렸다.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2019년), 올스타전 선발 등판(2019년) 등 코리안 빅리거 최초 기록도 세웠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거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작구 구속으로도 최정상급 선발 투수로 활약하며 현지 전문가들로부터 ‘연구 대상’으로 꼽히기도 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 계약(2020~2023년 총 8000만 달러)이 만료된 류현진은 한화 복귀와 빅리그 잔류를 두고 고민했다.

류현진의 마음은 KBO리그 복귀로 조금 더 기울어진 상태였다.

복수의 메이저리거 구단이 영입 제의를 했지만, 류현진의 마음을 흔들 정도는 아니었다.

결국 류현진은 한화 복귀를 택했다.

한화와 류현진은 ‘12년 만의 복귀’에는 합의한 채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손보고 있다.

/연합뉴스